

(당진요양원 개원식 총무원장스님 치사안)

치 사

오늘 당진군노인요양원 개원을 맞이하여 그동안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부단하게 노력해 오신 이철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군의회 의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요양원 개원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 원장 선오스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오직 잘살아보자는 기치아래 국민적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맞이하여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눈부신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사회적으로 위협에 처해 있는 국민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 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부처님의 자비로써 우리 모두 소외된 계층과 노약자들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시설이 건립되어 개원하게 된 것은 매우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진군 노인요양원이 노인요양 뿐만 아니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모범적인 노인복지요람으로 발전하도록 우리 종단에서도 세심한 연구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이 나의 부모요, 나의 미래의 모습임을 깊이 인식하여 요양원에 대한 따스한 관심과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요양원 개원하기까지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4(2010)년 10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 (대독)